‘불교중흥’ 원력 세우고 실천한 1년

사진으로 본 진우 스님의 1년

정리=신중일 기자

2022년 9월 28일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1년은 원력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 그 자체였다.

매일 아침을 108배 정진으로 열고, 종무행정 처리와 각종 종단 행사, 사찰 법문을 다녔다. 틈틈이 시간을 쪼개 청소년 · 대학생들을 만나 소통을 했고, 장애인과 이재민 등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이 같은 초인적 행보를 할 수 있던 것은 모두 진우 스님이 취임 초 세웠던 원력 때문이다.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K-명상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을 ‘과거 · 미래 천년을 세우는’ 불교 중흥 불사로 천명했으며, 이를 위한 행보를 1년 동안 이어왔다.

진우 스님이 보인 ‘원력의 1년’은 불교가 더 가까이, 대중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살행이었다. 그 ‘원력의 1년’을 화보로 정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0월 5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사부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지난해 11월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진우 스님.



진우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5월 1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2월 6일 봉행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법회’에서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이 화합 떡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해 9월 28일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종무기관과 조계사 사부대중의 환영 속에 진우 스님이 집무실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1월 11일 개최한 진우 스님 신년 기자회견. 총무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었다.



진우 스님과 내빈들이 5월 3일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을 축하하며 기념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1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우 스님과 제37대 집행부 스님들이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제52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귀의삼보하옵고,
온갖 빛으로 물들어가는 운문 도량으로 각처에서 수행정진하고 계시는 동문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함께하시어, 소중한 인연과 추억의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일시 불기 2567(2023)년 10월 12일(음력 8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운문사 선열당
안건 동문회 임원 선출 건 / 장학금 전달(필히 본인 참석) / 모교발전과 기타 여러가지 안건
문의 054)372-8800 (운문사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언 합장